

박성현, 루키에서 '대세' 로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캐나다 퍼시픽 오픈서 4타 차 뒤집기로 우승 차지

경쟁자 없는 신인왕 사실상 박성현 뒤편으로 올해의 선수상·상금왕 등 트리플크라운 달성 '관심사'

이쯤이면 '슈퍼루키'라는 수식어와 함께 한국에서 불리던 '대세' 타이틀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미국 진출 첫해 멀티 우승과 함께 각종 부문 1~2위에 오르며 허리케인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박성현은 28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헌트스폴드 클럽(파 71·6419야드)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4타 차 뒤집기에 성공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세계 여자골프 대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에서 데뷔 첫 승을 거둔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2승을 달성했다. 올 시즌 미국 무대에 첫 발을 내딛은 박성현은 아직 시즌 3분의 1을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서 완숙한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 상금을 벌이고 있다.

박성현은 이번 대회 우승 상금 33만 7500달러(3억8000만원)를 추가하며 시즌 누적 상금 187만18615달러(21억1700만원)를 기록했다.

상금 순위 1위였던 유소연(27·메디힐)이 이번 대회 공동 12위로 4만 달러 가량의 상금을 추가하는데 그치면서 박성현이 약 10만 달러 차로 선두를 올라섰다.

경쟁자가 없는 신인왕은 사실상 박성현의 뒤편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박



박성현이 28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시즌 2승을 달성한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현은 신인상 포인트 150점을 추가하며 1285점으로 압도적인 1위다. 2위 엔젤 인(미국)은 500점 대에 그치며 박성현과 두 배 넘게 차이를 보인다. 박성현은 다승 부문에서도 3승을 거둔 김인경(29·한화)에 이어 유소연과 나란히 2승으로 공동 2위다. 올 시즌 2승 이상을 거둔 선수는 이틀 세 명뿐이다.

이번 아니라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30점을 추가하며 130점으로 김인경(122점)과 렉시 톰슨(미국·117점)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선두 유소연(150점)과 격차는 20점이다.

CME 글로벌 레이스에서도 3위로 올라섰으며, 평균 타수 부문 역시 1위 톰슨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기록 못지 않게 놀라운 것은 박성현의 꾸준함과 안정된 성적이다. 미국 진출 첫해 성적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다.

이번 시즌 17개 대회에 나서 우승 2회, 준우승 1회, 3위 1회 등 '톱10'에 7차례 들었다. 무엇보다 컷 탈락이 단 한 차례도 없다. 20위 밖으로 밀려난 적도 두 번 뿐이다.

이처럼 안정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 올 시즌 남은 대회(11개)에서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각종 부문 선두 자리도 충분히 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평정한 박성현은 일년도 채 되지 않아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 대세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연 시즌이 끝날 무렵 박성현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신인으로 트리플 크라운(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최저 타수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다. /김민근 기자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 콜리세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5회초 솔로포를 때려낸 뒤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추신수, 시즌 16호 홈런포 가동

MLB 오글랜드전서... 텍사스는 3-8 패배

'추추 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8일 만에 대포를 가동했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 콜리세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냈다.

타이 1-3으로 뒤진 5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상대 선발 투수 자일 코튼과 볼카운트 2B2S로 맞서다가 6구째 체인지업 을 통타,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려냈다. 시즌 16호 홈런.

추신수가 홈런을 때려낸 것은 지난 20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8일 만이다.

추신수는 이외에 타석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했다.

홈런을 치기 전에는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다. 1회 볼카운트 1B2S에서 코튼의 5구째 체인지업에 헛스윙을 해 삼진을 당했고, 3회에는 3구 삼진으로 돌아왔다.

2-4으로 뒤진 8회 무사 1루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1루 주자 카를로스 고메스가 상대 포수의 패

스트볼로 2루를 밟아 타점 찬스를 잡았다.

추신수는 1루수 앞 땅볼을 쳐 고메스를 3루까지 보내는데 만족했다.

텍사스는 후속타자 엘비스 앤드루스가 중전 적시타를 쳐 1점을 만회했다. 끈질기게 따라붙던 텍사스는 8회말 4점을 내주고 3-8로 졌다.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전날 오글랜드전에서 5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활약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62(439타수 115안타)를 유지했다.

3연패의 수렁에 빠진 텍사스는 66패째(64승)를 기록했다. /김민근 기자

진안홍삼배 배구대회 성료

전국 배구 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8회 진안홍삼배 전국남녀배구대회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보조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남자부에 클럽 2부~3부와 아마장년부, 여자부에 클럽 3부를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대회에 참여한 희망한 팀이 123팀으로 신창부터 경쟁이 치열했으며, 최종 108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은 우승팀을 점칠 수 없는 박빙의 승부를 겨룬 결과 ▲남자클럽 2부 우승 곽홍덕초OB, ▲남자클럽 3부 우승(홍삼부) 완도황제전북, (마이산부) 송과창 ▲남자장년부 우승 남양주 배구사랑, ▲여자부 클럽3부 우승(홍삼



제8회 진안홍삼배 전국남녀배구대회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선수들이 열띤 경기를 벌이고 있다.

부) 전주하나물, (마이산부) 광주선원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항로 군수는 "홍삼과 마이산의 고장 진안고원을 찾아주시는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도 배구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 활성

성화는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진안홍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세기의 권투 대결' 메이웨더 TKO승... 시청률 12.9%

'세기의 대결'로 불린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와 코너 맥그리거(29)의 권투 경기가 시청률 12%를 넘기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28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15분까지 KBS 2TV에서 전파를 탄 두 선수의 경기는 전국

평균 시청률 12.9%를 기록했다. 부산에서 14.0%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수도권 시청률은 각각 13.2%, 12.9%였다.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이날 KBS 2TV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3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이다.

이번 경기는 5체급을 석권하고 통산 49전49승에 빛나는 전설의 복서 메이웨더와 이종격투기 단체 UFC 최초 두 체급 챔피언(페더급·라이트급)인 최고 스타 맥그리거가 복싱으로 대결을 펼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모았다.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경기는 메이웨더의 10회 TKO 승으로 마무리됐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